

[정보·과학]

■KT 디지털 영화감상실 서비스 구성도



극장서 놓친 영화 '온라인'으로 보세요

KT·하나TV, 비디오 출시전 서비스

"아니 벌써, 극장에서 영화 본 지 얼마나 됐다고..."

KT가 광주·전남지역 4곳을 비롯, 전국 85개 DVD방을 대상으로 신작 영화를 공급하는 서비스 '무비스팟'을 시작하면서 영화 '그놈 목소리'를 접하게 된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이 서비스는 극장에서 막을 내린 최신 개봉 영화의 판권을 KT가 확보하고 가맹 DVD방에 VOD(주문형비디오) 서버 및 솔루션을 제공, 가맹점에 DVD 출시 이전부터 온라인으로 영화를 전송하는 방식.

화질과 음질은 모두 DVD급으로 5.1채널 사운드를 지원하고, 기본 12개 틀에서 동시상영이 가능한 서버를 제공한다. 또 같은 제목의 영화를 동시에 여러개 틀에서 상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고 싶은 비디오나 DVD가 나갔다면 발길을 돌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미 '갑관장 대 갑관장 대 갑관장', '마파도 2', '나비효과 2' 등 최신 흥행작 다수가 가맹점에서 상영 중이다.

KT는 향후 초고화질을 지원하는 파일들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 메이저

배급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TV시리즈와 스포츠 콘텐츠 등 특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전국 가맹점 수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KT 메가박스 TV나 하나 TV의 개봉권 서비스도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극장 개봉→DVD·비디오→케이블TV→지상파TV 등의 순서를 거치면서 공급됐는데, 인터넷 TV의 전 단계인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극장 상영이 끝난 뒤 비디오가 출시되기도 전에 TV에서 리모컨만 눌러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비디오를 가져다 주거나 가지러 갈 필요도 없다.

KT 전남본부는 "극장 상영 기간을 놓친 뒤 비디오 출시까지 오랜 기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자체 디지털 영화 배급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비디오 대여업자들에게 이 서비스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탓에 문화콘텐츠대여협회는 최근 "하나TV에 먼저 주는 영화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빠르면 이달부터 지상파DMB 본방송 광주·전남 서비스 수준은?



이르면 4월부터 '손 안의 TV' 지상파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가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본방송에 들어간다. 하지만 방송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면서 소비자들은 30만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도 반쪽 서비스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선 DMB 못본다

■지상파 DMB 서비스 개념도



◇지상파 3사, 오는 9월 이내 본방송=지상파 DMB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길거리나 자동차 등 이동하면서 TV를 볼 수 있는 서비스. 방송위원회가 선정한 지상파 DMB 사업자는 광주·전라권의 경우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인 KBS와 광주방송(KBC)과 MBC 등 3 곳이다.

본방송 실시 시기는 KBS의 경우 오는 4월 30일, 또는 MBC (오는 7월 실시 검토중)와 본방송 실시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KBC는 이르면 8월 실험 방송을 거쳐 9월 또는 10월 본방송 실시 여부를 검토중이다.

KBS는 우선 2개의 비디오 채널과 한 개의 데이터 채널을 운영하면서 향후 방송법 시행령이 바뀌게 될 경우 오디오 채널을 통해 라디오 방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KBS가 방송위에 제출한 지역별 뉴스와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은 20%, 하지만 구제적 지역 방송 편성 계획은 미정이다.

MBC는 2개 비디오 채널 중 한 채널만 MBC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라디오 방송을 실시한다. 한 개 비디오 채널은 한국 DMB에 임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뉴스의 경우 광주·목포·여수·전주 MBC와 함께 협의하고 있지만 지역성을 감안해야 하는 탓에 내년여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C도 2개의 비디오 채널(SBS·KBC, YTN·전주방송)과 2개의 데이터 방송을 실시한다.

최소한 광주·전남 지역 단말기 소비자들에게도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이 누렸던 기본적 채널 선택권은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반쪽 서비스, 소비자들만 답답=정보통신부가 파악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판매된 지상파 DMB 단말기는 지난 2월말까지 ▲휴대전화형 134만대 ▲차량용 내비게이션 결합형 143만4천대 ▲PMP·PDA 등 복합형 31만7천대 ▲USB형 37만2천대 ▲노트북형 7만대 등 353만3천대에 이른다. 지난 2006년 같은 기간 단말기 판매량

중계기 없어 수신 안돼 10여 채널 콘텐츠 빈약 반쪽서비스 소비자 분통

은 11만 1천대.

단말기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가 나아진 것은 아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본방송이 이뤄지더라도 당분간 난시청 지역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KBC는 여수·해남·보성·순천 일부 지역의 경우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음영(陰影) 구간으로, 본방송이 시작되더라도 시청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BC도 비슷한 상황. 방송사들은 본방송이 시작된 뒤 추가 송신탑을 설치, 음영 지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08년에 가능하다. 결국 소비자가 지금 DMB 단말기를 사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길거리에서조차 '생생'한 화면을 볼 수 없는 셈이다.

지하 공간에서는 더하다. 중계기가 설치되

지 않아 지하철을 타면 DMB 방송을 볼 수 없다. 본방송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DMB를 깨끗하게 시청하려면 지하철 구내에 전파를 잇는 '중계기(Gap Filler)가 설치돼야 하지만 KBS, MBC, KBC 등은 당분간 중계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

지하철 역 한 곳에 중계기를 설치하는데만 대략 1억원이 들어가고 중계기 설치에 따른 점용료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같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KBC와 MBC는 2009년에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 정부 지원이 있거나 지하철 이용자가 늘어나는 등 수익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KBS조차도 지하철 구간 중계기 설치나 점용료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십만원 들어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방송은 커녕 방송을 보는 것조차 서비스가 끊기는 답답한 상황을 참아내야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임모(40·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런 상황을 알려줬다면 쓸모도 없는 수십만원짜리 단말기를 누가 사겠냐"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100 → 36 → 30원 '화상폰' 요금 경쟁

KTF 한달새 두차례 인하

화상 통화 가능한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서비스의 요금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KTF는 3.5세대 서비스 영상통화 요금을 10초당 36원에서 30원으로 인하한다. 지난달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0초당 100원이던 영상통화 요금을 36원으로 인하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깎아 내린 것으로, SK텔레콤의 영상통화 요금 수준을 맞췄다.

KTF는 또 영상통화 이용자층 확대를 위해 영상 통화료가 최대 40% 할인된 부가 영상통화 요금 상품 2종을 새로 선보인다.

한달 기본료가 5천원인 '쇼 영상 라이브' 상품은 40분의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쇼 영상 스페셜' 상품은 한달 기본료 1만3천원에 120분까지 영상통화가 무려다.

이밖에 부가 영상요금 상품인 '쇼 영상커피'의 무료 영상통화 범위도 기존 50분에서 100분으로 늘렸다.

SKT도 현재 영상통화료를 비롯해 추가로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3G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KTF에 맞서 공격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보 TIP

무선통신 지원 '디카' 출시



소니 코리아는 26일 2GB 내장 메모리와 와이 파이(Wi-Fi)

무선통신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카메라 '사이버샷 DSC-G1'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2GB의 고용량 내장 메모리에 VGA 이미지는 7천500장, 600만 화소 이미지는 630장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와이 파이 기술을 통해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또 3.5인치 LCD 패널을 탑재했고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인 '슈퍼 스테디샷' 기능과 야간촬영용 특수 모드 등도 지원한다.

movies

이제 영화 즐기는 시간 보너스도 Happy Time

영화안내

Megatzen Day 매주 월 - 금 영화 4,000원 관람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취해-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800

M관 300 (18세)	최고급관
2관 이장과 군수 (12세)	
3관 그 여자적사, 그 남자적곡 (12세)/브레이크업:이별후애(애) (15세)	
4관 300 (18세)	
5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6관 블랙북 (18세)	
7관 넘버23 (15세)/수 (18세)	
8관 이장과 군수 (12세)	
9관 뷰티풀 선데이 (18세)	

Megatzen Day 매주 월 - 금 영화 4,000원 관람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취해-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이장과 군수 (15세)	
2관 1번가의 기적 (15세)	
3관 쓴다 (15세)	
4관 행복을 찾아서 (전제)	
5관 수 (18세)	
6관 좋지아니한가 (15세)	
7관 300 (전제)	

금,토(2일) 11시 상영
*지식식 당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매주 금·토 11시 2,000원 할인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중, 고생 1,500원 할인 (공휴일제외)

항로사랑 영화시영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영화관편면)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11시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집현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6번

1관 넘버23 (15세)	
2관 쓴다 (15세)/브레이크업:이별후애(애) (15세)	
3관 이장과 군수 (12세)	
4관 이장과 군수 (12세)	
5관 수 (18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300 (18세)	
8관 블랙북 (18세)	
9관 뷰티풀 선데이 (18세)	
10관 300 (18세)	

즐거움이 가득 * www.mcl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넘버23 (15세)	
2관 그 여자적사, 그 남자적곡 (12세)	
3관 이장과 군수 (12세)	
4관 뷰티풀 선데이 (18세)	
5관 300 (18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애) (15세)/쓴다 (15세)	
8관 수 (18세)	
9관 블랙북 (18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팝콘취해-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영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